

## 대북 의료장비 지원사업 진행

6월 16일, 정부로부터 기금이 들어왔다. 비록 남북 경색으로 직접 만나 진행할 수가 없어 유럽 공동체를 통하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바람은 똑같다. 북한 주민의 어려운 의료 환경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눈다는 것.

## 원목자 연수 연기

6월 25일에서 26일까지 광주 명상의 집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원목분과위원회 원목자 연수가 메르스로 인해 10월 22일에서 23일로 연기되었으며, 장소는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이다.

## ‘가톨릭 원목자 교육과정’ 개발 4차 회의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본 협회 사무실에서 유수일 주교님과 김한수 신부(서울대교구 일반병원사목위원회

위원장), 김평만 신부(본 협회 원목분과위원장), 박현숙 수녀(본 협회 원목분과위원회 총무), 강영숙 국장(본 협회 사무국장)이 그동안 3차(3.26/ 4.17/ 5.22)에 결친 회의를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3월 로마에서 열린 춘계 주교회의에서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원목분과위원회가 추진하는 ‘원목자 양성을 위한 3단계 교육 프로그램’이 서울대교구 ‘원목자 양성 교육’과 중복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자들이 모여 네 차례 회의를 했다. 그 회의들에서 ▲서울대교구 일반병원사목부의 교육은 원목 봉사자(대부분 평신도) 양성 교육이며 ▲의료협회 원목분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원목자 기초 과정은 원목자(성직자, 수도자) 양성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양 교육과정을 일원화할 수는 없다. 원목 봉사자 양성 교육과 원목자 기초 교육과정은 원목 교육의 양 날개(원목자

및 원목 봉사자)로서 전국의 가톨릭 원목자 및 원목 봉사자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보건 사목 담당 주교의 관리하에 상호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가 결성되면 강사진 및 교육 내용 등을 서로 협력하여 교육과정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몽골 의료봉사, 메르스로 취소



7월 6일에서 13일까지 몽골 다르항의 의료봉사가 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해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본 협

회 담당 유수일 주교님과 협회장, 사무총장 그리고 의료봉사위원장, 해외 의료봉사단 단장님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올해로 10년째인 몽골 의료봉사는 안과 백내장수술과 치료적인 성형외과수술을 하기로 하여 올해도 환자들이 기다릴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의료 관련 물품은 5월 하순 몽골로 선적하였다. 10년을 쌓아 온 나눔의 의료에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메르스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지면서 리스크가 증가하였고, 몽골 다르항 시청에서도 메르스를 조심하라는 공문을 다르항의 각 병원에 하달한 상태. 또한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이호열 신부님도 한국과 몽골을 위한 결정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의료봉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미 몽골에 보낸 의료 물품 정리를 위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직원 2명을 파견하였다.

## 의료봉사위원회 2차 회의 실시

메르스로 인한 몽골 의료봉사 취소로, 7월 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용수산 아크로비스타점에서 의료봉사위원회 2차 회의를 하였다.

2015년 상반기 사업 보고로 ▲국내 의료지원사업 ▲몽골 환우 초청 및 필리핀 의료봉사 및 필리핀 MCU와 MOU



건 ▲북한 의료 지원-통일부 지정 기부금 사업 보고 ▲네팔 의료 지원 관련과 하반기 사업안 보고와 국내, 해외, 북한 의료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북 의료장비 지원사업’으로 고영심 대표와 유니타스(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정세덕 신부, 김훈일 신부, 황정숙 수녀가 같이 참석하였다. 11월 27일 평가 보고회 실시를 공지 사항으로 알리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11월 27일 평가 보고회 실시를 공지 사항으로 알리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일본 성마리아병원 ‘신장이식팀’ 연수 실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본 협회의 회원 병원인 서울성모병원에서 일본 사회의료법인 눈의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신장이식팀’이 연수를 시행한다.

일본에서 이사장, 이식외과 교수 2명, 투석과 진료부장, 수술실 간호사, 이식병동 간호사, 통역 3명 외 열 명이 방문하게 된다. 7명은 1주일 동안 이식수술 및 외래 등을 연수할 것이며, 이사장님은 회원 병원 네 곳(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진행한 한일가톨릭의료기술협력협정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신장이식 연수를 의뢰하면서 한국 내 장기이식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의 연수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신장이식은 2015년 6월, ‘신장이식 2,500례’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개원 이후 제2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 신장이식 연수를 통해 향후, 일본의 성마리아병원이 후쿠오카 구루메 지역을 대표하는 신장이식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2015년 전국가톨릭간호대학생 연합피정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회장 홍현자 수녀)에서는 2015년도

‘전국가톨릭간호대학생 연합피정’을 7월 3일(금)에서 4일(토)까지 1박 2일로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진행하였다. 메르스가 진행 중이었으나 전국에서 가톨릭간호대학생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꿈을 먹는 젊음이’를 주제로 김동렬 안셀모 수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다.

### 제6차 간호영성세미나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8월 8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6차 간호영성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홍현자 회장의 인사와 영상 기도로 시작하여 강의는 ▲의료인의 영성(장광재 신부-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정호승 시인) ▲실천적 삶 안에서 의료인의 영성(신상현 수사)에 대해 감명 깊게 들 수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230여 명의 가톨릭간호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에 충분했던 강의였다. 또한 의료인으로 살아간다는 뿌듯함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은 깨닫게 되는 시간들에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내년을 기약했다.